

광주시, 첨단기술 융합 ‘K-방위산업’ 육성 박차

‘광주혁신포럼’ 개최...5개 기관 협약
정부정책 연계 AI 등 전략산업 확산

광주시가 첨단기술과 융합한 ‘K-방위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12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희관에서 ‘K-방산 광주혁신포럼’을 열어 광주 방위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과학기술원·광주테크노파크가 주관한 포럼에는 지역 방산기업, 유관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방위산업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과 함께 첨단전략산업으로 꼽히며, 레이저·모빌리티 등 첨단기술과 융합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정부는 ‘K-방산’을 육성하기 위해 ‘방산혁신 클러스터’ 추가 지정, 부품 국산화·공동 연구개발 지원, 해외수출 프로그램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술 기반을 갖춘 지자체가 방위산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포럼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가 가진 기술



광주시는 12일 과학기술원(GIST) 오희관에서 지역 방산기업, 유관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방산 광주혁신포럼’을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기반시설(인프라)과 산업 기반을 방위산업으로 확장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광주 방위산업 육성방향’(광주테크노파크), ‘국방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방위사업청), ‘고출력 레이저 방산 적용 방안’(LIG넥스원)을 주제로 관련 기관의 정책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육군 전투실험 프로그램 소개, 지상 MR O(유지·보수·운영) 참여 방안 논의, 국방반도체 기술 토론 등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기술을 방위산업에 적용·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시, 광주과학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등 5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 광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실증, 기업 지원, 사업화 등 전 과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 조례 제정, 방산기업 원스톱지원센터 유치,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모 추진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는 2013년 국방벤처센터를 유치하고 지역 기업의 방산기술 개발을 꾸준히 지원했다”며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는 만큼 광주시도 지역 기업들이 방산 시장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반려견과 함께 떠나는 ‘남도한바퀴’ 첫 선

전남도, 당일 여행상품 11월 4회 운영
알찬 구성 ‘1박 2일 남도여행’도 눈길

전남도가 가을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11월 특별코스로 ‘반려견 동반 당일 여행’과 ‘1박 2일 남도여행’ 등 2개 상품을 운영한다.

반려견 동반 여행코스는 11월 한 달 동안 금·토요일 총 4회 운영한다. 코스는 ▲14일 곡성·섬진강 기차마을 동화정원과 도림사 ▲15일 강진·보성·강진만생태공원과 울포해수욕장 ▲21일 순천·드라마세트장과 오전그린광장 ▲22일 구례·담양·섬진강대나무숲길과 담양소쇄원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늘어남에 따라 기획한 이번 코스는 반려견과 함께 남도의 자연과 명소를 둘러보는 여행 상품이다. 왕복 교통비, 식·음료, 관광지 입장료 등이 포함된 5만원의 합리적 요금으로 운영된다.

1박2일 여행상품은 광주 유스퀘어(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목포 해상케이블카, 해남 산이정원, 순천만국가정원, 여수 아쿠아플라넷 등 전남 동·서부권 주요 관광지를 두루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11월15·22·29일과 12월6·13일 등 총 5회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왕복 우등버스비 식사(4식), 관

광지 입장료, 숙박비(2인 1실)가 모두 포함된 21만9천원이다. 전남의 대표 관광지를 1박2일 일정으로 알차게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가을을 맞아 선보이는 이번 특별코스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일상 속 여가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이 남도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아 전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색다른 감동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개 특별코스 세부 운행 일정과 예약은 버스한바퀴 공식 누리집 또는 전용 콜센터(062-360-850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재정 기자

광주지역 김장철 식재료·성수품 위생 불시 점검

광주시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7~28일 김장용 식재료 및 성수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교차점검반 7개 반을 편성해 지역 294개 업소를 대상으로 불

시 점검을 실시한다. 또 김장철 다소비 식재료에 대한 수거 검사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 마늘·생강 등 주요 김장용 재료와 김치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 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점검 대상은 김장용 재료를 직접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김치류를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다.

민·관 합동 점검반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무신고(무허가) 영업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또는 표시사항 누락 원료 사용 여부 등 법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내달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전남도는 12월 “시·군과 함께 불법소각 예방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월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경작지 등에 방치되기 쉬운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을 집중 수거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폐부직포·차광막 등 폐자재도 수거 대상이다.

전남도는 집중 수거를 위해 이장단 회의, 현수막 등을 통해 수거보상금 제도와 분리배출요령을 적극 교육·홍보하며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농경지나 노지 소각 등 불

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고 지원을 받아 매년 시행 중인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농촌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마을 단위로 지정된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보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 폐비닐은 1kg당 60~100원,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병류는 1개당 100원, 봉지류는 1개당 80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가에서 배출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수거·운반 체계에 따라 마을별 순회 수거 후 전문 재활용업체를 통해 재활용 등 적정 처리된다.

/양시원 기자

수익형 전원마을 담양송이마을 토지분양

[국내 최대 스마트팜 재배단지]

토지 분양가격 : 담양 최저가 3.3㎡당 50만원

1차 분양 입주완료
2차 토목공사 완료 - 선착순 위치선택

체류형 쉼터 / 세컨 하우스 / 주말농장 / 개인캠핑장 / 동·식물 관련시설 / 창고부지 등 입주가능

각 필지 8m도로 접. 토목공사. 기반시설.

250평 분양(전용율80%) 분양가 : 3.3㎡/45만원

<1차 15가구> 성황리 입주완료

<2차 6가구> 입주완료

기반시설 조성

재배사+관리사+휴게실(세컨하우스)

스마트팜 자동화시설

1:1재배교육(기술지도)

송이마을
전남 담양군 대덕면 성곡리 31-6번지

☎ 062)222-0037 / H. 010-4323-5252

CMYK